

전남 산업·농공단지 '특화만이 살 길'

나주·함평·보성 등 유치업종 바꾸고 조기분양 민간협 정부 전략산업 육성 발맞춰 기반구축 등 차별화 주력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분양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의 효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차별화 없이 조성했다가 기업 유치가 실패한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치 업종을 바꿔 특화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에 발맞춰 산업 기반을 구축, 경쟁력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화만이 살 길=빛가람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의 경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몰려 있는 점을 감안, 에너지 전용 산업 조성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산업 육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국가산단을 육성, 관련 산업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24

일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대 172만㎡ 일대에 2560억원을 들여 에너지·전기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자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같은 움직임도 반영됐다. 전남도 등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나주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할 바 있다.

LH의 용역이 내년 초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산단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받아 오는 2021년 산단 조성에 나서겠다는 게 나주시 구상이다. 나주시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은 LH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가산단 조성에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주는 또 빛가람 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면 입주기업의 R&D를 촉진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함평도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지원추진단을 꾸려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함평군은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테스프코스를 꾸리고 산단 행정구역 변경,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 조기분양을 위한 투자유치 등에 주력한다는 구상을 세웠었다. 전남도도 20평 규모의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별화·물부림=기존 치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했다가 분양에 실패하거나 입주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농공단지를 살리는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함평 동함평일반산단의 경우 전체 분양 대상 면적(50만1333㎡) 중 83.9%(42만843㎡)가 분양됐지만 해당 산업용지(66개)에 들어선 공장 중 가동중인 곳은 32개(가동률 48.5%) 뿐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도난 업체나 오랜 기간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업체가 적지 않은 탓으로, 함평군은 지난해 말 계약 해지 업체를 대상으로 반환할 계약금액을 조사

한 결과,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함평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지 보조금을 높이는 등 투자유치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다. 장흥은 바이오산단 분양률을 6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 직원이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세웠고 목표시는 대양산단·산정농공단지·세라믹산단·삼진산단 등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가족사 입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며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성군도 섬유·석유정제 등 다수의 업종을 별도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업종을 변경하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분양률 50% 미만 산업단지(2018년 12월 말 기준)는 목포 대양(48.1%), 목포 세라믹(30.6%), 담양(40.8%), 장흥 바이오(33.8%), 순천 해룡(46.4%), 광양 세종산단(1.2%) 등이며 농공단지의 경우 장흥(4.3%), 진도 군내(36.6%) 등이 30% 대 분양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강 미공개작 '사랑하는 아들에게' 95년 뒤 출간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숲'서 원고 전달식... 2114년 공개

100년 뒤 출간하는 노르웨이의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가 한강이 노르웨이 현지에서 원고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노르웨이 공예예술단체 '미래도서관'으로부터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작가 한강이 25일(현지시간) 100년 뒤에 출간할 미공개 소설 원고를 재단 측에 전달했다.



'미래도서관'은 지난 2014년 시작한 사업으로 100년간 매년 1명씩 작가 총 100명을 선정해 이들의 작품을 오슬로 외곽 숲 '미래도서관 숲' 100년 된 나무 100그루를 사용해 2114년 발간하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다. 한 세대에서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일군 작가의 작품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취지다. 한강은 아시아 국가 출신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미래도서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한강은 이날 '미래도서관의 숲'에서 열린 원고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흰 천으로 싸맨 미공개 '한강 원고'를 프로젝트에 이끌고 있는 스코틀랜드 예술가 케이트 패터슨에게 넘기고 제목을 발표했다. 원고는 오슬로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가 2114년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흰 천은 인생의 통과와례인 결혼식과 장례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상징을 띤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성공개최 최선"

배우 유해진 홍보대사 위촉

영화배우 유해진(사진)씨가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제8회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유해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유씨가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광주 택시기사 역할로 출연해 광주와 인연이 있고,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점을 위촉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유씨는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올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주제인 '휴머니티(HUMANITY)'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디자인비엔날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 도시 위상에 걸맞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성공 개최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씨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행사 참석, 홍보 영상물 제작,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옛 전남도지사 한옥 공관 15억1000만원에 팔려

옛 전남도지사 한옥 공관이 15억1000만원에 팔렸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은 전남도지사 한옥 공간인 '어진누리' 등 한옥 3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전남 A 법인 1곳만 응찰해 최저입찰가(14억9800만원)보다 2000만원 가량 높은 15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일본 수도권 지바(千葉)현 모바리(茂原)시의 골프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카트를 직접 운전해 트럼프 대통령 등 일행과 이동했다.

옛 전남도지사 한옥공간은 지난해 말 매각이 결정된 뒤 2차례 유찰 끝에 3번째 입찰에서 낙찰됐다.

3번째 입찰부터는 감정가에서 10%를 낮춰 매각이 진행됐다.

한옥 공관은 안채(369.82㎡)와 사랑채(58.32㎡), 문간채(16.56㎡) 등으로 나뉘며 박종영 전남지사 시절,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청 뒤편에 지난 2006년 10월 목조한옥 팔각지붕 구조로 완공됐다.

당시 부지(1357㎡·410평) 매입비와 건축비로 15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토지(1357.1㎡) 등을 합한 최저가 입찰 금액은 16억6544만원이었다.

한옥공관 옆 외부 손님 숙소와 회의장으로 쓰이는 '수리재'는 매각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계속 활용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트럼프, 北미사일 의미 축소... 불턴에 '공개 면박'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 강경노선' 아베와 입장차 노출

미국 '슈퍼 패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두차례 발사를 유엔제재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강경발언을 쏟아내지 하루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면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26일 트위터에서 볼턴 보좌관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된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표현하며 '나의 사람들 일

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본인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전날 발언과 명확히 선을 그고 북한의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감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24일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며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상황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북 유화 메시지는 볼턴 보좌관뿐 아니라 27일 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일 간 대북공조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방일 후 아베 신조 총리와 의 첫 일정인 골프 라운드 직전인 오전 7시30분에 나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몰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참고·사무실 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분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대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산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김경가 50%. 해남군 신이면 금굴리 대지 17518㎡ 주택 2 김점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퉁이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임태면에서 7봉거리 독립점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펜션좋은 7억2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사4동, 매21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신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김경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중 2층일부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접 매 4억3천

상 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신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접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동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산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팬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텔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4중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엘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2019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이관과정 운영 (주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일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인터뷰 작성)	2019.06.03(월) ~ 06.19(수)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06.03(월) ~ 06.20(목)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 행 일 시	2019.07.03(수) 09: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 격 자 발표	2019.07.19(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외식산업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